

4대 은행,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익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여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철저한 빚문 잡그기로 대손충당금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자산을 큰 폭으로 늘리지 못하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예대마진)를 벌리는 식으로 수익을 확대했다.

23일 주요 시중은행 실적 공시를 보면, 신한·국민·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4조344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3조2496억원에 견줘 1조948억원(33.7%) 늘었다.

국민·신한·우리은행 3곳은 상반기 순익 1조원대 클럽에 안착했고 하나은행도 9988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33% 증가 4조3444억...예대마진 벌려 수익 ↑

대손충당금 많이 줄어든 측면도 순익 향상

증가폭을 보면 국민과 우리은행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국민은행은 1년 전보다 무려 5000억원 가까이 순익이 늘었고 우리은행도 3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대형은행들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은 리스크 관리에 따른 대손비용 감소와 수수료 등 비이자익 증가도 일조했지만 주요 수익원인 이자수익의 성장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은행의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70~80%로 절대적이

다. 실제 이들 은행의 이자이익은 일제히 상승했다. 적게는 5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가량 늘었다.

당국의 압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은행권의 이자이익이 증가한 것은 예대마진 등 순이자마진(NIM)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다. 순이자마진은 은행이 대출 등 자산을 운용해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조달비용을 차감해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 활용된다.

지난해까지 대출자산을 불린 은행들은 올 들어 당국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자 이번에는 이자장사를 확대하며 수익을 끌어 올리고 있다.

마진폭은 국민은행이 가장 컸다. 덜 주고 더 받았다는 얘기다. 국민은행의 NIM은 1.72%로 지난해 말 대비 0.11%포인트 뛰었다. 지난해까지는 큰 변동이 없다 올 들어 1분기에만 0.06%포인트 오르더니 2분기에도 0.06%포인트 상승했다.

실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봐도 국민은행의 예대마진은 지난해 1.78%에서 올 들어 1분기에만 0.1%포인트가 된 1.88%를 기록했다. 2분기에도 순이자마진이 1분기과 유사하게 상승한 만큼 예대마진도 0.1%포인트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머지 은행도 정도는 다르지만 올 들어 예대마진을 벌리며 잇속을 챙기고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1.81%를 기록했고 우리은행도 1.75%로 0.09%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말부터 꿈틀 거린 시장금리 상승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명분으로 대출금리는 빠르게 올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작년 12월14일과 올해 3월15일 두 차례 인상하는 동안 국내 대출금리는 0.40%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금금리는 거의 그대로였다.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을 이유로 가계대출금리는 0.48% 올리면서도 1년제 정기예금 금리의 경우 같은 기간 은행 평균 예금금리는 0.0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으나 이진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성립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불황속에서 은행권이 차주의 부담을 외면한 채 손쉽게 돈을 벌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뉴스스



유통업계 큰손 '키덜트族' 잡아라 여름휴가 시즌 맞춰 마케팅 '활발'

키덜트 시장 1조원 시대, 피규어 전년 대비 127% 성장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마니아 '키덜트(Kid+Adult)' 족이 유통계를 주름잡는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6 콘텐츠 산업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키덜트 관련 시장 규모는 2014년 5000억원대에서 지난 2015년에는 무려 1조원 대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피규어 매출은 2016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127% 급증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소품몰을 비롯한 유통업계 역시 키덜트족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피규어 체험·전시 등의 행사를 진행하거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토종 피규어 상품을 독점으로 선보이는 등 키덜트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복합쇼핑문화공간 여의도 IFCC물에서는 키덜트족을 겨냥해 다양한 피규어를 감상할 수 있는 IFCC물 피규어 전시회를 진행한다.

IFCC물 노스아트홀에서 8월2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현재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스파이더맨' 등 미블트(Kid+Adult) 족이 유통계를 주름잡는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스파이더맨 홈커밍 피규어와 미녀와 야수의 장미꽃 피규어는 국내에서 최초로 전시되는 희귀 피규어로서 마니아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행사에 내에 스타워즈 캐릭터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마련, 관람객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IFCC물 마케팅 관계자는 "과거 마니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캐릭터 피규어가 어린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 연령층의 취미생활이 되면서 유통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며 "소비가 큰 키덜트족을 겨냥해 업계에선 관련 이벤트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며, 직접인과 가족 등 다양한 연령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안내도 청소도 맡아서 '척척'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LG전자 안내로봇(왼쪽)과 청소로봇이 움직이며 각각 항공편 등 정보제공과 청소를 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 청소로봇과 안내로봇 각각 5대를 배치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LG전자의 안내로봇과 청소로봇은 공항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항 이용객들에게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 공간을 청소한다

여름 휴가철 자동차보험 사고 증가...10~20대·렌터카 취약

보험개발원, 3년간 사고발생 분석

여름 휴가철에는 장거리 운행 증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사고가 평상시 대비 건수는 2.4%, 피해자는 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20~8/15) 자동차보험 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휴가철에는 운전경험이 적은 저연령 운전자와 렌터카 운전자 사고가 특히 증가했다. 10대 및 20대 사고운전자의 휴가철 1일 평균 사고건수는 평상시 대비 각각 27.4%, 5.1% 높았다.

또 여름 휴가철에 이용량이 증가하는 렌터카의 경우에도 사고건수

가 10.6% 늘었다. 이 중 10대 및 20대 저연령 운전자 사고가 평상시 대비 각각 46.5%, 27.0%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가철 사고피해자도 20세 미만에서 두드러졌다. 10세 미만 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28.1%, 10대는 26.3% 증가했다. 휴가철이 방학기간과 겹치면서 어린이·청소년 자

를 동반한 차량운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휴가철에는 긴급출동서비스 중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결연 서비스 이용이 평소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및 충분한 휴식을 통한 졸음운전 예방이 필요하다"며 "장거리 운행 전 차량점검으로 최상의 차량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Lotto 제 764회차 당첨결과 (2017년 7월 22일 추첨)

7 22 24 31 34 36 + 15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7	2,459,975,46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44	65,226,62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 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908	1,504,178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90,896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530,979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한 :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휴일일 경우 익명당첨)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